東亞日報

今日四面

發行人 編輯人 印刷人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番地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新聞價 廣告料 ... 電話光化門

卒業生의 就職難 機關을 만들라

一

今春에는 專門學校以上程度卒業生이 內外를 通하야 一百餘名에 達하리라 한다 往時의 朝鮮으로 본다거니와 眞實한 일로 聰明한 靑年을 緊急히 要求하여야 할 今日의 朝鮮에서는 이 一百의 專門卒業生이 오히려 不足한 듯 감이 업지 안타 그러나 事實은 반하야 最近幾年間을 두고 問題거리가 되어 오는 것은 不過幾百名되는 專門卒業生을 어떠케 處置하겟느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職業을 어떠케 하느냐 하는 問題이다 이 얼마나 큰 矛盾된 現象이랴? 二千餘萬이 活動하는 朝鮮社會에서 幾百의 新進을 收容할 곳이 업다는 것은 누구든지 首肯할 수 업는 怪常한 일이다

二

「幼而學之는 將而欲行之」라 함은 어느 社會 어느 時代에서든지 金言이오 鐵則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朝鮮의 今日은 社會事情이 不自然하다 할 만큼 朝鮮靑年의 進路는 障碍되어 잇는 바 되어 그러한 金言鐵則은 그들로 하야금 意氣를 沮喪케 하고 享樂을 貪케 하고 現實을 呪咀케 한다 그리하고 一般 말은 「朝鮮사람은 學校를 卒業하여도 무엇을 해 먹을 것이 잇서야 하지」 하는 嘆聲을 發케 된다 이것을 어찌 世間의 愚夫愚婦의 自暴自棄에 부치는 말이라고만 할 수 잇겟느냐 적어도 朝鮮人現實을 解한 이 한 結論이 이 한 精神이 消極的으로 敎育에 對한 一般化하야 우리 民族에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民族 全體의 休戚問題가 아니고 무엇이랴 참으로 恐懼할 만한 現像이다

三

배운 것의 利用不利用은 學術과 技藝의 그 自體問題에만 局限된 것이 아니오 거긔에는 人類의 가장 큰 生活問題가 만흔 關連이 되어 잇다 一方으로 學術技藝를 利用한다 하면 一面으로 生活問題를 解決한다 함은 生活의 威脅을 늣긴다 함이오 그리고 非生活의 威脅이 업는 有產階級의 子弟이라도 배운 바를 利用할 機會를 엇지 못하면 그들은 特殊한 者外에는 흔히 個人享樂의 墮落生活에 들어간다 그러고 면할 수 업고 意氣沮喪한 靑年은 性格破產者가 되고 마는 것이 自然한 現狀이다 어써 敎育바든 高等遊民을 만히 가진 社會에서 健實한 發達을 바랄 수 잇겟느냐

四

高等遊民의 增加로 因하야 朝鮮社會가 畸形的으로 發展하는 것이 朝鮮民族에게 幸이 될지 不幸이 될지 그것을 지금 여긔에서 吾人은 論斷코자 함은 아니다 어쩌케 되엇든 不幸된 豫感이 잇다면 客觀的 不得已한 事情에만 機會엇기도 無論努力하려니와 우리 民族이 비록 貧弱하다 할지라도 우리 손으로 新人을 訓練할 機關을 만들지 안코 안 될 줄 안다 이와 가티 各方面으로 有能力을 가진 有產階級의 猛省을 促하야 둔다

無產黨某候補에 某國에서 大金送致

主義宣傳費로 大使館을 經하야 事實判明이면 斷乎處置

今回의 總選擧에 當하야 無產派某候補者의 選擧運動이 非常히 活潑하얏는데 同候補者의 選擧運動費는 各方面으로 探查한 結果 某國大使館을 經由하야 送致된 것이라는 嫌疑가 잇슴으로 當局에서는 極秘裡에 調查中인 바 萬一 事實이 判明되면 斷乎한 處置를 取하리라더라(東京電)

選擧無効訴訟

大審院이 受理한 選擧無効訴訟은 左記五名에 關한 것이라더라

河崎助太郎(岐阜實同) 高島順作(新潟民政) 工藤鐵男(靑森民政) 山邊常重(長野民政) 中村啓次郎(和歌山民政)

特別議會後

從來의 政策으로 特別議會는 邁進 田中內閣의 對議會策

對議會策에 對하야 田中首相을 비롯하야 閣僚와 與黨幹部等은 種種協議中이던 特別議會는 從來의 政策으로 進行할 것이나 此終了後는 政策의 變更에 着手하야 各階級이 理解하야 支持하는 新政策을 揭할 方針을 決定하얏다더라(東京電)

田中內閣의 職業紹介 新政策決定

日의 職業紹介所委員會에서 政府의 新政策을 決定하야 實現에 着手하얏는데 그 主要한 者는 職業紹介所의 國營、女工寄宿舍의 改善、女工募集의 禁止、工場設備의 改善、女工에 小金貸付와 其指導保護等이라더라(東京電)

民政總務會

民政黨總務會는 三日午後一時부터 本部에 開會

一、十三日午後一時부터 議員總會、同席上總裁演說

二、同夜兩院議員招待會

三、十四日午後一時上野精養軒에 國民懇親會、倒閣의 第一段

四、選擧干涉、人權蹂躪調查開始

五、政府의 議員買收警戒를 決定하고 同三時散會하얏더라(東京電)

南方의 北伐로 關會再開는 薄弱 日本은 暫時觀望

關稅會議再開의 機運은 北京及南方兩政府間에 漸次濃厚하게 되엇는데 要컨대 兩政府間에 大元帥令으로 關稅增徵을 實施하려는 것은 極히 理由가 薄弱하며 此에 對하야 日本政府로서는 此의 方針으로 華府會議의 決定에 依하야 列國과 協議할 積極的 方針을 取하야 硬軟兩樣의 意見이 잇서 容易하게 一致되지 못하얏슴뿐 아니라 南北兩政府가 關稅問題에 對하야 一方에는 南方國民政府의 北伐計劃이 日을 逐하야 進捗하는 形勢에 依하야 보아 外務省에서는 此에 對하야 數日來 熟議를 重하야 日本政府로서는 此際 積極的 方針을 取치 아니하고 北伐의 經過를 暫時 觀望한 後 對策을 決定하리라더라(東京電)

中運條約近近調印

中國『샴』間의 條約은 近近 調印될 模樣인데 調印이 終了되면 中國政府는 『샴』에 領事를 派遣하기로 決定하얏다더라(北京二日發)

獨自의 不信任案

無產各派의 對議會策

無產各派는 對議會態度에 對하야 九日協議會를 開할 터인데 田中內閣不信任案에 對하야는 無產派獨自의 立場으로 民政黨에 追隨함을 避하야 民政黨보다 먼저 不信任案을 提出하고 萬若 이것이 否決된 境遇는 그 立場을 明白히 한 後 民政黨의 不信任案에 贊成할 意嚮이라더라(東京電)

足尾의 日勞黨 組合員奪還 騷動未免?

日勞黨이 足尾銅山組合員奪還運動을 開始하야 來月十二、三日頃부터 足尾의 各處에서 演說會를 開하고 同黨員河上、麻生氏等 多數鬪士가 足尾에 向하기로 되엇슴으로 會社側에서는 萬若坑夫가 組合에 復歸하면 곳 解雇한다 하야 當然히 一大騷動은 未免할 듯 觀測된다더라(足尾電)

不信任案은 少數差로 否決

政府와 與黨側觀測

總選擧直後 政民兩黨은 中立議員의 懷柔에 狂奔하고 잇는데 最近에 至하야 政府與黨側에서는 特別議會에 不信任案이 出하야도 極히 少數의 差이지마는 此를 否決할 수가 잇는 數字上의 根據를 提하얏다고 稱한다 卽 政府政友會의 語하는 바에 依하면 政府黨側에 立하는 者는 政友會議員外 實業同志會는 全部 日外지의 情實에 依하야 不信任案에는 反對한다고 보아도 조타 中立議員中 確實한 者로 七名이고 此外 中間黨의 一名을 加하면 政友二百二十二名 實同四名 中立七名 其他一名 計二百三十四名 此에 反하야 反對黨側은 民政黨所屬議員二百十七名 無產黨八名 革新 名 中立 名 計二百三十一名으로 數字上에 出現된 優勢이고 實際로 議場에 臨할 境遇에는 缺席者等의 關係로 政府黨은 議會直前까지 安心할 수 업다고 한다(東京電)

「更生」에 焦慮하는 政友會의 苦悶

新政策樹立과 陣容變改로 後藤子에 入黨勸告

政友會는 政局打開策으로 新政策을 樹立하려고 考究를 거듭하며 國民의 信任을 得하려는 意嚮인데 特히 今番의 總選擧結果 二大政黨의 對立으로 된 以上 民政黨에 對抗하야 크게 黨의 陣容을 整頓할 方針이다 그리하야 前者 實業界에서 手를 끈 久原房之助氏도 田中首相의 勸說에 依하야 入黨을 보게 되엇스며 最近 露西亞를 視察하고 歸日한 後藤新平子에 對하야도 此際 政友會에 入黨하기를 希望하고 잇는데 犬養氏와 如한 者도 政友會의 將來를 爲하야 後藤子의 入黨에 好意를 가지고 大膽히 內交涉도 잇섯다고 傳하는데 後藤子의 意向은 아직 明하지 안흐나 政友會一部에는 多少의 反對論者도 잇는 模樣이며 後藤子도 目下傍觀의 狀態인 바 或은 不遠하야 正式으로 入黨하게 될지도 未知이다 그리고 政治的 立場으로 보아 後藤子가 이제 卽時 政友會에 入하야 外交의 刷新을 圖하려는 際임으로 對中對露外交問題에 關聯하야 相當한 影響을 與하리라더라(東京電)

政府幹部協議 後藤子 伊東伯과

二十九日來 政府는 後藤子、伊東伯等과 往來하고 鈴木內相、鳩山翰長、宮川總監等과 協議하고 잇더라

特別議會後 內閣一部改造?

政府與黨의 圓滑을 期코저

總選擧對策의 失敗、議會中心主義否認의 聲明其他怪文書事件의 發生等에 依하야 鈴木內相以下 山岡警保局長等은 與黨內部로부터 反對의 聲이 잇서 政府及與黨幹部는 臨時議會를 目前에 두고 頗頻히 此不詳事를 抑止慰撫하려고 努力하는 中이다 그러하야 與黨內部의 不平은 內相警保局長에 對할 것뿐만 아니라 黨內의 人材配置에 對하야도 此를 改善할 必要가 잇다 하야 特別議會後 實現을 期할 터이라 한다 卽 鈴木內相을 隱退케 하야 水野文相을 後任에 轉任케 하고 文相에는 粕谷義三氏로 하야 다시 與黨의 陣容을 整理하기 爲하야 望月遞相의 後에는 上野를 求하고 幹事長에는 島田俊雄氏를 起用하야 本部의 空氣를 一新함과 同時에 政府與黨의 圓滑을 期하야 本議會에 臨하려 하며 又人의 此機에 際하야 政務官도 更迭하야 人材로 하야금 政務에 臨하게 하리라더라(東京電)

加奈陀의 日人排斥

컬럼비아洲議會에 排日決議案 日英條約廢棄도 勸告

晚香坡駐在 福間領事發電에 依하면 英領 카나다、브리티쉬、콜럼비아洲議會는 廿九日 『예비드』、『부리오』等 二議員의 提案으로 猛烈한 排日演說을 試하얏스며 右二議員은 提案理由를 說明하야 日英條約을 廢棄하라는 旨의 勸告를 할 決議案을 提出하얏다 洲政府當局은 此에 對하야 東洋人의 入國을 防止하지 안흐면 아니될지나 日本人은 中國人에 比하면 事情이 다르며 又 日本과 英本國及카나다와의 政治的 關係貿易關係等에 鑑하야 愼重考慮하지 안흘 수 업다고 答辯하얏다 結局 議員 『도의크』의 動議에 依하야 延期되엇는데 本決議案은 千九百二十四年十二月十七日 同洲에 提出된 決議案의 後身으로 依然히 日本人의 不平等待遇이니 外日本當局은 此의 經過를 重大視한다더라(東京電)

解散說有力

閣僚와 伊東後藤子間往來도 內意探索과 援助要求 樞府側도 贊成

鈴木內相이 率先하야 主張한 議會再解散論은 田中首相도 動하게 되어 首相도 野黨의 不信任案을 萬若 可決하는 境遇에는 再解散도 亦不得已하다는 意思를 가지게 된 模樣이다 卽 過日來 田中首相及解散計劃에 參劃한 小川鐵相은 伊東巳代治伯을 訪問하고 後藤子와의 間에 從來를 보답하고 더욱 切迫한 境遇에 處하야 政府가 不得已한 境遇에는 再解散을 斷行할 內意를 探하고 援助를 求한 것인 듯하다 又 樞府方面에서는 如此 境遇에는 再次의 解散이라 하드라도 憲法上에 立脚된 相當한 理由가 잇스면 決코 反對할 理由는 無하다 하나 此境遇 萬若 政府의 措置가 野黨側의 彈壓其他를 强行하는 事가 잇스면 或은 國擧하야 治安을 攪亂할는지 未測임으로 田中內閣은 此點에 對하야 愼重한 考慮를 하는 中이라더라(東京電)

中立各派에 諒解

政府對議會策 黨內結束으로

田中首相은 三日午後零時半 秦幹事長、小泉總務、鳩山翰長、前田法相을 官邸에 招하야 最近 民政黨의 總括的 不信任案에 中立議員의 贊成을 得하기 難함을 認定하고 主力을 鈴木內相彈劾에 集中하야 選擧干涉에 對한 一般的 感情과 議會否認聲明을 利用하야 中立議員의 贊成을 贏得하려 하는 點에 對하야 情報를 交換하얏는데 此際 極力黨內의 結束을 堅固케 함과 同時에 中立各派의 諒解를 求하야 遺漏가 無하게 하자는 데 意見이 一致되엇다더라(東京電)

勞農黨選擧批判 結局은 解散 中止又中止

勞農黨의 選擧批判演說會는 三日午後六時半부터 大阪公會堂에서 開催되엇는데 聽衆이 多하야 最初부터 殺氣가 漲溢하다가 八時半 大山氏가 登壇하자 香川縣에서의 選擧干涉을 痛論하매 官憲의 彈壓에 言及하자 곳 中止되엇다 聽衆은 激昂되엇스나 곳 鎭定된 後 新議員 水谷長三郎氏는 勞農黨의 態度를 述한 後 再次 險惡하게 되어 十時半 解散命令을 當하얏다 大山氏는 同夜十時四十分發로 東京에 歸하얏스나 檢束者는 四十名에 及하얏다더라(大阪電)

라이밀半島에 露飛行場設置計劃

라이밀半島는 西伯利亞의 最北端이라 毛皮其他貨物의 輸送을 促進하기 爲하야 豫備的 手段을 取하얏는데 此 半島에 飛行場을 設置하야 「레닌그라드」와 「캄차카」間에 이미 計劃中인 水上飛行航路를 開通하려는 것이라더라(리가二日發)

露休戰紀念日

各紙紀念記事揭載

三日은 쏘벳트革命成立後 中歐諸國과 쏘벳트政府가 休戰을 約한 「브레스트리토우스크」條約調印紀念日에 相當함으로 쏘벳트諸新聞은 此에 關하야 紀念記事를 揭하얏는데 就中 『프라우다』紙는 『브레스트』『리토우스크』條約이야말로 當時帝國主義國家가 相互戰爭하고 잇는 사이에 쏘벳트露西亞에 한 餘裕를 與한 것이엇다더라(莫斯科電)

英外相제네바行

英吉利外相 『챔버렌』氏는 國際聯盟理事會가 五日부터 開催됨으로 此에 列席하기 爲하야 本日當地發 『제네바』에 向하얏더라(倫敦二日發)

廓淸會總會 聲明書發表

廓淸會는 五日午後二時부터 丸之內『호텔』에 總會를 開하고 政府의 選擧干涉事件人權蹂躪에 關한 聲明書를 作製하야 公表하고 同四時散會하얏는데 同會는 더 暫時 存留한다더라(東京電)

馮軍前衛는 大名에 主力은 新鄕、衛輝

◇前線에서는 이미 小衝突 山東軍은 韓莊에 對峙

馮軍의 前衛部隊는 大名方面에 잇고 그 基本部隊는 新鄕、衛輝一帶에 集中配備되어 前線에서는 이미 小衝突을 演出하고 잇다 一方 去廿八日 濟南에 歸着한 孫傳芳氏는 本日中 濟寧、兗州方面에 赴하야 褚玉璞氏와 連絡을 取하야 山東의 防備에 當하려고 防禦線의 完備를 急히 하고 잇는데 山東軍의 前線은 目下 韓莊一帶에 잇더라(北京二日發)

政府의 買收眞相

民政黨總務會에 報告된 政府의 買收眞相은 奈良縣의 民政黨代議士에 對하야 同縣 今村政友會支部長은 會見을 提議하야 政友會에 入會하라고 勸誘하얏스나 同議員은 此를 拒絕하얏다 그런데 同議員에 對하야 政府의 依囑을 受하얏다고 생각되는 大阪某大實業家로부터 一人十萬圓式의 買收費로써 三名의 代議士를 다 와 잇스면 조켓다고 甘言으로써 勸誘하고 特히 同議員에 對하야는 陸軍參與官의 椅子를 준다고 하얏스나 同議員은 此를 拒絕하얏다는 露骨的 事實에 民政黨은 所屬議員의 嚴重監視를 하기로 되엇더라(東京電)

英埃條約絕望

埃及政府英提議一蹴

埃及政府는 英國及埃及間에 新條約의 締結을 拒絕하기로 決定하얏다 右理由는 該條約은 埃及側의 希望에 副치 안흔 것임으로 此를 承認할 수 업다는 것이더라(카이로二日發)

波蘭新式選擧投票

「포란드」에서는 目下 選擧投票에 關하야 新方法이 講究되엇다 卽 從來와 如히 特定한 投票函을 用하지 안코 投票用紙는 此를 選擧人의 面前에서 透明한 封套에 入하게 하는 方法인데 此方法에 依하면 從來와 如한 秘密選擧는 거의 그 跡을 絕한 셈이라더라(나우엔二日發)

消息

▲韓世良氏(中米通信社員) 三日夜北京에서 入京

▲韓昌熙氏 宿痾로 去月二十七日 嘉會洞自宅에서 長逝

▲金炳庾氏(本社營業局長代理) 社務를 帶하고 昨夜東으로 釜山地方에 出張

▲金錫中氏(本社廣告部長) 社務를 帶하고 淸州、槐山地方에 出張中

橫說竪說

◇요즘 釜山水上署에서는、同署의 官印을 僞造하야、日本渡航證明書를、지어 팔아먹는 犯人을、잡앗다고

◇朝鮮人인 故로、남가는 곳을 못 가고、못 감으로、얌구진 犯罪가 생기엇스니、이것도 安心하기 爲하야 八字라고나 할가

◇『無斷告로 事務室出入이 能率을 減殺한다』고 總督府出入記者에게 注意를 喚하얏다니、一一히 仲介者를 通하야 會見하랴는 누구에게、『能率의 減殺』은、누구에게、議論을 하여야 될 것인고

獨逸經濟界의 矛盾과 쏘스案의 將來(一)

金佑枰

一、序論

歐洲의 政局은 軍縮 安全保障 政治問題와 經濟問題等 政治問題의 解決及仲裁裁制問題等 安全保障 獨逸賠償案의 經濟問題의 解決如何에 左右될 것이다 一九二五年十二月一日에 「로카노」條約(獨逸、佛、英、伊間에 締結된 「라인」地方의 西部條約과 獨逸과 東西方에 在한 諸國과의 間에 開催된 仲裁會議)이 成立되엇다 그러하야 그 翌年인 一九二六年九月八日에 獨逸이 國際聯盟에 加入되므로 비롯오 同條約이 有效하게 되엇다 從來 獨逸은 그 効果는 如何間 軍縮과 安全保障及仲裁等 問題에 誠意的 態度를 表示하야 왓슬 뿐 아니라 依然히 此에 對한 「사포타지」의 態度를 持續하야 「제네바」軍縮會議라는 것도 水泡에 歸하얏스며 兵數는 減하얏스나 「라인」地方의 駐屯兵撤去는 何時에 實現될지 不明하며 又 「로카노」條約에 約束하얏슴과 如히 萬一 獨逸이 賠償을 履行하지 안는 境遇에는 武力에 訴하지 안코 仲裁에 依하야 關係各國의 問題를 解決할 것인가 하면 現下의 狀態로 보아 거의 絕望의 形勢下에 在함이 事實이다 如此히 國際的 信義觀念이 餘地업시 蹂躪된 歐洲大地에 弱者의 地位에 處하야 獨逸은 弱者의 悲哀를 맛보면서 三年을 經하얏다 然이나 他諸國은 依然히 此에 對하야 良策을 獨占的으로 맛보면서 及彼有名한 「쏘스」案을 履行하지 안하면 아니되게 되엇다 그러면 國際的 信義觀念이 어떠하든지 賠償金은 强制徵收를 云하는 것보다도 今余가 論하려는 點은 賠償金支拂을 履行하야 온 第三年의 獨逸經濟界를 考察하야 賠償案의 將來를 歐洲平和에 論及하려 한다

二、賠償案의 由來

歐洲大戰後 歐洲各國의 經濟界가 바야흐로 破產地境에 切迫하얏든 一九二三年十一月에 米國의 指導下에 國際財政專門家로 組織된 賠償委員이 任命되엇다 此로 由하야 賠償問題取扱上 一時期를 作하게 된 것이니 此賠償問題委員會는 二로 分하야 第一委員은 獨逸財政에 關한 安全策을 研究하야 通貨政策을 講究하게 하고 第二委員會는 獨逸의 在外資金을 調查하야 獨逸에 移入策을 研究하게 하얏다 그리하야 此國際財政家專門委員의 報告案을 主題로 삼아 一九二四年四月에 倫敦會議의 結果 同年八月에 至하야 効果를 生하게 되엇다 이리하야 비롯오 一九一八年以來 破產에 切迫하얏든 歐洲經濟界를 回復하는 第一步를 踏하게 되엇스며 國際政治의 暗雲을 掃하는 데 第一階段이 되엇다

三、賠償金償還 第三年

標準年 第一年에 十億馬克과 第二年에 十二億二千萬馬克及第三年에 十二億馬克을 無事히 支拂하얏다 그러면 第三年에 十二億馬克을 如何한 方式으로 支拂하게 되엇는가를 詳述하건대 左와 如하다

(一) 크레디트狀態와 通貨

一九二七年의 獨逸의 產業界는 一般的으로 好景氣이엇다 此와 同時에 信用의 擴張으로 年末에 至하야는 오히려 緊張狀態에 至하얏다 二三年前부터 產業의 合理化運動으로 因하야 失業勞働者數가 漸減되는 同時에 勞働賃金이 漸高되엇스며 따라서 生產及分配가 增加되어 왓다 그러나 如此히 產業이 擴張되고 繁榮하게 되엇스나 거의 全部의 物價交易이 國內市場에 制限되므로 諸物價가 漸高되는 同時에 特히 直接消費品物價가 昻騰되엇다(食料品一月小賣價指數가 一四一이든 것이 十一月에 至하야는 一五二)如此한 國內市場의 好景氣로 輸入이 激增되엇 比하야 輸出이 緩漫하야 互相均衡狀態가 維持되지 못하는 同時에 國內市場의 好景氣로 因한 結果라고 할 만한 信用이 擴張되엇다 卽 非但 『라이히스뺑크』(國立銀行)뿐만 아니라 外國으로부터 輸入한 信用及借入金額이 加速增加된 것에 依함이라 아니할 수 업는 것이다 그리하야 如此한 外國信用額의 過多와 速度의 過敏으로 因하야 獨逸의 一般復興事業이 助長되엇다는 것보다도 이미 景氣中에 在한 商工業擴張에 一刺戟이 된 것에 不過하게 되엇다 이리하야 直覺的으로 通貨膨脹을 聯想케 하는 同時에 物價는 騰貴하야 外國爲替에 影響을 及하야 賠償案에 至大한 關係가 生하얏다는 것을 意味하게 되엇다

大藏省發行復興貯蓄債券 日本勸業銀行發行勸業債券取扱

有價證券 現物賣買 及信託業

東洋殖產信託社

府 町十番地 電話一〇〇七番(振替口座京城一七二一)

(各府郡에 代理店及駐在員을 募集하오니 希望者는 照會하시압)

豫約募集 スターリン ブハーリン 著作集 全十五卷

解放理論이 업는 곳에 解放運動은 업다

모든 欺瞞的 부르조아思想을 克服하고、날날이 깁히 世界全民衆 사이에 浸潤하여 잇는 것、이것이 맑스·레닌主義의 世界觀이 아니냐、스타린、부하린의 이름은 世界有數의 맑스主義者로、國際無產階級運動의 指導者로 世界民衆에 가장 親한 이름이다 本著作集은 勞農露西亞 解放의 最大武器를 잡는 것이며、無產階級의 最高思想에 接함을 意味한다 本著作集十五卷은 宗敎、哲學、歷史、政治、經濟、勞働運動、植民地解放運動의 廣汎한 領域에 亘한 맑스主義의 合理論의 展開이며、푸로레타리아 解放의 敎典이다 모든 學徒、農民、勞働階級은 本著作集에 依하야 맑스主義最新의 發展을 배워 熱과 光과 力을 줄 것은 疑心업다

佐野學·西雅雄 編

譯者 佐野文夫 水野秀夫 淺野晃 岩田義道 水下孝治 秋笹正之輔 黑川健三 高山洋吉 山口正作 有村俊雄 中野政治 野坂參三 西雅雄 志賀義雄 上田茂樹 佐野學

社會科學의 最高權威인 맑스主義 最新最高의 發展

燦爛한 全十五卷

第一卷 共產主義入門 第二卷 唯物史觀 第三卷 레닌主義의 根本問題 第四卷 부르조아經濟學批判 第五卷 轉形期의 經濟學 第六卷 帝國主義論 第七卷 十月革命에의 道 第八卷 露西亞에 잇서서의 階級鬪爭과 革命 第九卷 共產主義戰術 第十卷 社會主義建設과 農民問題 第十一卷 國際無產階級運動 第十二卷 露國共產黨史(上) 第十三卷 同(下) 第十四卷 支那革命의 問題 第十五卷 世界資本主義의 現勢

(申込締切三月廿日限)

內容見本 申込次第 進呈

特色 ●四六判五百頁以上、上製箱入 ●高雅한 裝幀 ●佐野學、西雅雄兩氏의 嚴密한 校閱을 經하야 定譯 ●不統一、不體裁는 絕對로 아니다

東京市神田區表千代田町 白揚社 振替東京二五〇〇番 電話神田二八五番

京城府鍾路二丁目 電話光化門二八七番 振替京城二四五四番 巖松堂京城店

ClibPDF - www.fastio.com

◇…비뒤에고기잡이 =작일동대문밧게서=

東京의「三一」紀念 警察이七十名檢擧

데구년의○○긔념제를거행 東京府下戶塚에서

일일오후일곱시부터동경부하호총원병위뎡(東京府下戶塚源兵衛町)일천칠백칠십번디조선신간회(新幹會)지부에서데구주년조선○○긔념제를거행코저하야 대소동을일으키어소관호총서에서는 조선인김모(金某)외칠십명을검속하얏다는데 아즉상세한내용은몰르나전하는바에의하면 긔미년삼월일일사건을긔념코저 그가튼긔념제를계획하얏든것이라더라(동경)

揮發油爆發로 統營에大火災

발동긔조수는중상되어위독 損害一萬五千餘圓

지난삼일오전여섯시반경에경남통영군동평면 길야뎡매축디(慶南統營郡統營面 吉野町埋築地)산양정미소(山陽精米所)에서불이나서 약한시간에 동건물은전반소가되고 발동긔조수 신부근(申富根)은중상을당하얏다는데 손해는약이만오천원가량이라하며 발화한원인은 발동긔의고장으로 휘발유가 폭발되엇다는것으로 중상된신부근은 생명에는관계가업스리라더라(통영)

新上附近小火

이일오후네시경에시외령혜리(靈惠里)려석하(李錫夏)의집변소에서불이나서일시혼란을일으키엇스나 즉시소방조(消防組)의활동으로 순식간에진화되어 고큰손해는업섯다더라(신상)

京城府自働車 西洋兒孩轢傷

사일오전 열한시사십분경에 서대문뎡(西大門町)일뎡목뎡류장부근에서 경성부청 자동차 일백팔십일호 자동차가 서양인의네살가량되는 아이를치어 중상을당케하야 피해자는 목하부내『세부란스』의원에서치료를받는중이라는데 그는동의원 미국인의 아들로생명에는 관계가업슬모양이라더라

新患發生二十八 死亡總計五十二

◇한자루게룩빈룩십칠명◇ 猖獗依然한京城染病

경성삼십여만부민을위협하는장질부사(腸窒扶斯)는벌서사망자가오십이명에달하얏스며그동안계속하야매일이십명이하의발생을보며 하야지아니하야일반부민으로하야금한심치못하게하는것은물론위생당국으로하야금더욱주의를게하는중이오다시긔비수한병이류행할조짐이만연되려가엇는중인데삼일에는약배가늘어이십팔명(그중조선인오명)의신환자를내이어일반을놀래게하얏다는바사망자는두명임으로합계오십이명이라는비사명을돌파하얏고 퇴원자는八十六명이오현재환자는오백구십이명이시내각병원에서신유하는중이라더라

奇特한生徒 乞人을救濟해

대뎐군외남면부사리(大田郡外南面…)에서신유하는중이라더라

南廊(沙里) 조선예수교당안에 미동안을두고 합동하다가 가뎌잇는 보몸목동아학교(崇仁夜學)에통학하는 미뎐비인덩십상해(上海)에서업미동안치료하 (大田面…)(一)이라다가 본집에서 러비연마를친구 는너하야 그의부모와 거리나의집 시내포되어 그간 아약경찰에서 취됴를받다가 지난이일 새벽 청심사국에서 가지고 남과가티 살아보자는뜻 입송되어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으로 방금예심중에 있다더라(대뎐)

녀긋한봄따라 놀아나는婦女

는가증한것이라보고 주머니에 잇든돈 십전을 내어주고 다시자 기집에돌아가서 큰큰히 품팔이 하야 어더노흔 쌀되가웃을 주어 지게하얏다하야 지괴학교에서 는 상벌오일밤에 곤상 하는상 을주엇다더라(대뎐)

常備兵으로 騎兵一旅移駐

치안유지의필요로예산계상 移住地는元山? 木浦?

軍政校卒業生 재녕검사국에

조선내의상비병(常備兵)으로현재여게사단이 잇는바 이것만으로는치안유지에 부족하다하야 촉록부로부터 육군당국에 요망한바잇서 소화사년도 예산에그경비를계상한 모양이라는대 병원수는 긔병일려단으로 일본으로부터 나올터이라하며 이수디상선지(移住地)는원산(元山)디방이나 목포(木浦)디방으로결뎡하리라더라

보처음 하해도아이옵 비수천리(安岳郡內小川里)에 둔 상괴준(崔麒俊)(二)는 지금으로부터 십년전에 중국무창 (中國武昌) 으로들어가서 군사정치학교(軍政學校)를졸업하고 남방혁명군(南方革命軍)에가담하야잇다가

六大團拳銃强盜 四十万圓强奪潛跡

금궤를부시고금은과현금강탈 警察은犯人嚴探中

중국상해북경로대동운송뎜(上海北京路大通運送店)에서는 이일 진강(鎭江)으로부터 금은괴(金銀塊)약구만불(弗)의수송을의탁밧고 북뎡거장에서바더가지고 뎜내금고(金庫)에보관해두엇섯는데 동야에륙인조의단총강도(短銃强盜)가뛰어들어와 주인을협박하고금고를열고 금은괴외에현금구만일천불을강탈하야 자동차에실고어대로인지도망하얏다는바 금은괴와현금합하야 십팔만(十八萬)불의큰강도단인만큼 경찰에서는수사에몰두중이라더라(상해뎐보)

殺害嫌疑者

뎡주서에서취됴중

뎡주군이언면 마성동(定州郡伊彥面大成洞) 김오석(金五錫)은 동리승국의 살해혐의자로는 동리승국이 방문이 일에 그혐의 수(차?)로 뎡주서(定州署)에인치취됴중이라더라(뎡주)

하얏다는데 전긔 리성래의관해자의유 김화실(金化實)(三)과김수성의평양서 안해박정애(朴貞愛)는원래부터 이라더라 허영에떠서 농가를 실혀하고항상도회를 동경하고 잇는중요사이일기가차차따뜻하야집을보고 지난이십구일오후일곱시경 무단히집을나간후로돌아오지아니함으로 반드시 평양으로갓스리라하야 그외가티 남편두사람이차봉(承鳳)(三)과 사다니는중이라는데이청은두녀자로뎡주서(定州署)에인치취됴 자가 집을떠난리면에는 어떠한중이라더라(평양)

强盜에兼强姦

강변술장사로파의봉변

지난이십칠일새벽에전남고흥군동강(泉江)주재소에서는 고흥 남양면 왕주리(南陽面旺珠里)한뎐해변에서 주식영 에대한강간범인 김왕(金)입을하고 근근히지내는김왕(金)(三)이라는 과부의집에성도가 침입하야 가진돈 무긔로주이 김명을위협하야 약간의금전을강탈하고몸의의복을벗기시 나서 수욕을 마음대로 채운후에어대로 도주하엿슴 김추어버리엇다는데(고흥)

轢傷한運轉手 平壤署에逮捕

지난삼일아츰 평양경찰서 에서는평양부수뎡(平壤府壽町)과청보(?)의 자동차부(箕城自動車部)에운전수 …

勞動者亂鬪로 十二名檢束

경도부축야군(京都府竹野郡)에토공으로잇는 조선인오석병(吳石柄)(三)은 동야군신촌토공조선인 리운정(李鵬正)파 도로공사의일로부터 방목중이든바 전긔오석병은 이일밤부하 조선인스물세명을 다리고 리운정의집을엄습하야 몽치로 막우따려서 열명을부상케한바 관계자 열두명은검속되엇더라(경도)

朝鮮週報發刊

오는십일부터

주간이서아신문은조선주보(朝鮮週報)로데호를변경하야 발행하리라는데 당분간은 순간으로 발행하리라더라

仙臺地方依然暴風

각처피해빈빈

일본칭삼디방은작일아츰부터대폭풍이일어 나서풍속(風速)이십메돌르 집웅이벗겨지고 판장이날리어가며 뎐신뎐화가 불통되고철도의고장도속출한다더라(선대뎐보)

八年前强盜犯

平壤署에偶然被捉

공범은징역치르고나와 【拳銃携帶코時局標榜】

평양경찰서에서는 수일전 평양부팔천대뎡(平壤府八千代町)류두명과공모하고 작난감 권총(玩具拳銃)을 가지고 십칠번디 김모(金某)의집에서 총준비한후 중화군풍동면 풍정리(中和郡楓洞面楓井里)외 삼림중에 도마를 베어가지고 인호길기부 ○○영명이라는 작자를 원동(?)으로부터 군도(軍刀)을소지하고 강도를하든중 평양인 수상한인물이 잇다하야 그의외에 칠팔년전 강탈소비하든중 그공범두명은 취됴한결과 그는 칠판년전 강도를하든중이라하며 그외에 다수한금품을 권시국을표방하고 다니면서 금품을 강탈하든 강도의 것이 판명되어 목하엄중취됴중이라는데 그는 강도와 관형되어 목하엄중취됴중이라는데 그는 강도전과가 이는자로 지난대정십년(?)이번에 데포된것이라더라(평양)

수로잇는안선규(安鉎奎)(三)를 안치하고 파실상해죄로 목하취됴중이라는데 그는지난일일오후아홉시경에 평양 황금뎡(黃金町)뎐차길로 자동차를몰아동행하든중 마츰그곳을지나가든 교구뎡(橋口町)이십번디 량유조(梁有祚)(三)란녀자를치어현장에혼도케하얏스나 그대로어대로인지가버리엇든바 량유조는 노진향(盧鎭港)을일으켜매우위중할뿐아니라 노인이 부러진듯하야 생명이 위태하게되엇슴으로 이를 탐지한경찰에서는 전긔와가티 사람을치어 고도몰르는체하고 다라난운전수를취됴하는중이라더라(평양)

爆藥과電燈使用 雷電이라고敎徒欺瞞

◇밀양산중의긔괴한제례◇ 暴露된无極敎正體

무극교(无極敎)라면 그본부를 북청유등디(北靑…)에 두고 혈발수단으로무매한사람을유혹하야 패가망신(敗家亡身)케하는사람이 비일비재임은 이미다 아는바어니와 그교인들은 근일에각처로돌아다니며 떠디도수단을 쓰기시작하얏다는데 지난이십구일 오후아홉시경에는 국비밀리에 그교도중 신입어가 혼자들만 삼백여인이 경남밀양군 밀양면 활성리(慶南密陽郡密陽面活城里) 산덕에잇는산덕 금시당(山亭今是堂)압산비탈에 모이어 소위두목되는 자들이각도각군의 교도들을 구분한후 수보는범으로 삼십육괘에 응하야 사람을 셋식세우고 또칠식이야 사람을 세운뒤에 소의 이망위에사람을 세우고 교주란조철제(趙哲濟)(?)가 그우고간뒤에 지휘자가나와 말하되 도수불벼에는뇌성벽력(雷聲霹靂)이 나리게 된다하고 칠성보(七星步)란걸음을걷고 수군울위 중앙에들어가 결한후칠성보를 하라고 말하되 선언하매 일반교도들은 눈을감고 주문을외우는중 참안간에천 고긔금시당건너편강변(江邊)에서 조고마한불이번쩍하며 매 양으로왕하야 차차불이번적하며 교도들은더욱칭신을차리고참회 성벽력이 나린줄알고 지유에 이니고 소리가더크게나고 또 삽차는 불만나고 소리가나지 아 니하며 일반교도에게 주문을 읽게하얏스나 명령 소리는 내 지못하고 멀한시경에 폐회하고 각기헤어젓다더라

다가 이천동섭근처에서 꼼풍을 만나서 가다가 다행(○○)과비밀한관계를맷고지내온 어이천도뎡(仁川府島町)해변에 표착되어 간신히 구조되엇다는 손해는 약사 오십원이라더라

不義子壓殺犯

평양서에피착

평북녕원군녕원면녕녕리 (寧邊郡寧遠面永寧里) 류복녀(劉福女)(三)는일찍이 곱살때에 동리박영환(朴永煥)과 결혼하야 아들하나가지고 살아오든중 그가이십사세때에 그남편이죽은후로 공공판이 얼러라는데 그는이런 것은 세상이부끄러운 일이라하여 로돌아가서 동리 무명신(無名)에게서 옥가튼사내아이를분 면하야가지고즉시발로눌러죽인 후자긔친처되는류희선(劉熙善)과공모하고 그산속에 밀장한사실이 요사이에발각되어 평양디방법원(平壤地方法院)에 긔소가 되어잇든바오는 오일에 그데일회 공판이 열리리라는데 그는이 되어잇든바

敎徒等憤慨 敎士를追跡

비밀히달하갓든구경군들이 정체를폭로하고만단효유에 多數敎徒悔悟

그후이소식을듯고그교도 주지아니하고 벌서 떠낫다는동 창의 괴괴한 소식을듯고 그교도 지가 잇다는 소문을 늦은말을 하니 경북영주(榮州) 칭 핑계 만합으로 그잇다는집을 도(端道)와경남부산(釜山)김해 내하얏스나 종시 발견하지모 (晉州)각디에서구경온사람이 십 한야다에 밤이밝도록 수차차지 여인이 교도이체하고 그실황을 탐지하얏스나 종시맛나지못하고 자세히보즉 전긔 소리가날때에 그등은 다시그교도들 는사람이 석량불을켜서무엇에다 맛나는대로 전긔조철제의 허모 가부치고가는것이 은근히보힌뒤 맹랑한수작에속아 어리석게도가 에 소리가나고그다음에 불이번 쩍하야 그러고그다음에 불이번 산을 향해하지말라고 친절히권 가이둘어가 실상을본즉 어떠한 엇든지 소위교수를뵈섭어옹징으 사람이무슨약음에불을켤고소리 하기로 역시 사방으로 수색하야 가나게하고 그다음수데던도(電燈)으로불을켜니불빛이나 벌써도망한뒤임으로니를잡고 사람들은 하괴도가막히어 교주 조철제를보기를칭하되잘보이어 먼져 수색하야 두수로의광경을묵도한 듯한상당진방면으로후적중이 더라(밀양)

木船一隻遭難

인명은무사

지난이일 수원군반월면(水原郡半月面出雲里)삼십삼번디 김성보(金聖保)(?)는 조선 …

試驗이나흔悲劇

가형사피착

황해도해주군서변면선산리(海州郡西邊面仙山里) 사백오십오번디정해용(鄭海容)의장남정영희(鄭永熙)(三)는지난이일인천에서 가형사(假刑事)짓을 하다가인천경찰서에검거되어엄중취됴를받는중 그는 긔정영희는청신에 이상이잇는자로 판명되어 지난 삼일 그본뎍디로 돌려보냇다는데 그횡년은 상당한가뎡의자질로서상당한교육을바든사람인데해주공립사범학교 (海州公立師範學校)에재학중 작년에학교시험에락뎨되어 자긔가뎡에서도적 망을듣엇고 동무간에도 조소를 바더 학교에실증이나서 퇴학 한후 지난이월중순에 황해도청 에서 시행하는 데삼종교원(第三種敎員)시험을보앗스나 불행 히또락데되엇슴으로졸연히 돌비관하는 나머지청신에이상이생 기어이일이십삼일자긔집을떠나 서 경성으로와서 여러날을두류 하다가삼월일일에인천네리주국 이러관에가서가형사짓을하다가 발견되어 그와가티 취됴를밧고 본적디로 돌려보내게된것이라 더라(인천)

樂華音樂會

평양숭실유악부(平壤崇實音樂部)에서는졸업생축하음악회(卒業生祝賀音樂會)를 지난이일오후일곱시삼십분경부터 평양공회당(平壤公會堂)에서 개최하얏섯는데당일은음악뎍에출연키위하야특별이 경성서나려온『맥쓰』부인의 『바이올린』을비롯하야 정의(正義)숭의(崇義)양녀학교와 정의교합창(合唱)과 기타여러가지 음악이잇서 크게 성황을일우엇더라

今日의卒業式

五日

◇京城公商 오전열시반부터 데사회졸업식을 거행
◇中央高普 오후두시부터 데십구회졸업식을 동교에서거행
◇普成高普 오후두시부터 데륙회졸업식을동교에서거행

◇團體와集會◇

▲第一高普校友會 시내화동(花洞)경성데일고등보통학교(第一高普)교우회(校友會)에서는칠일오후 일곱시부터 춘긔총회를동교강당에서개최하리라더라

◇휴지롱

▲이지음엽병이창궐하는데말할요긴할 회합국이들킨다▲사건은 수일전 시내모처순사의집에서 생긴일인데 그순사가 자긔집건는방에잇는병자를 잡아가려고 다른순사한테 일러준것이 결국그순사의어머니를잡아갓다▲이야기가그뜻하다 사실은건는방에 누어잇는 사람을 잡아가도록해야겟다는 이야기를 자긔어머니와의론할때▲이소리를듯는방사람은 놀래어 더안커잇섯다▲아니나다를까 본순사가와서 병자를 묘사하나모다성한몸인듯하오로안人밧을열어보앗다▲이때마츰머리가압하서 순사의어머니가누어잇나가들켜서입본순사는웬떡이냐하며그를잡아갓다▲결국은순사가일려주어 가괴어머니를 잡아가게한세옹이되엇다、하하하

小說以上의 三大秘密

今日發行된『別乾坤』에

안칙한운명의길을 밟아가는긔생의쌀자최는 넘어도 진긔한긔록을 어쎄상에 남져노흔것이다 그러나 소설보다도 진긔한피의긔록은 넘려처지지안코 마는조선것이다 더구나 지금처디의 조선사람의 살림에는 얼마나눈물겨웁고 참처한인생의긔록이 지어저날것이냐 조선데일 신긔한잡지『別乾坤』이 오래동안 준비하다라은 경험을맛는긔고 팔싱중에잇다가간신히어려게발행되 엇는데 이번신춘특별호에는 이러 十여가지 신긔한긔사중에해상위에일어난 사실긔담 긴흔밤에 도망하는 괴상한녀자의 비밀실화 十년전부터 흘러가는 소문난기 밀의비밀이야기 이三大비밀실화가 실려잇서서 도처에 아단 또야단 집집에 이야기 일이로 떠돌석하다한다 사볼사람은 다팔리기전에 즉시京城開闢社로五十二錢을보내야된다

奇怪莫測한 新流行!

別乾坤冊에 恠常한記事

시원! 시원! 하여도이번새로나온『別乾坤』잡지에 실려잇는『新界層생상긔』라는 날곱가지괴사다 신긔신긔하야도 이런 케 신긔한 긔사는 업고 괴상괴 상하야도 이런못(괴상한긔사 는처음보는것이니 새로올류 행을예상한다 핑계하고 각방면 각종류의남녀인물을 모조리몰 라다 좋괘하기작이업게 꽁자해 대인것이라 뭇는사람마다 자긔 의 본부러한것처럼 시원해한다 는데 이번『別乾坤』에는 이외에 十八세 처녀비행사 리뎡회양 과 별건곤긔자가마조안저서신 긔한유담을한 긔록도 실리어

珍習과怪風 兩展覽會

단五十錢이면 시골서도구경

조선땅이좁은듯하야도나서서단겨보면 시골시골에 별별괴상스런풍속이다만타 서울개화된 압록주풍속이다만타 서울개화 『런권』예서는 그위별별 괴상한 풍속을 모다모아서 『별건곤』잡지책속에 련람회를 여 구경할수잇다한다 그러고또한 가지 세계각국에는 남녀혼인 하는풍속이 이상야릇한것이 만 타 어떤것은 돗키에도망치스럽 괴상스러운풍속이다잇는데 모 다가『런건곤』이번치(新春號)한권만사면 풍속뎐람회를또꿈여노흔고로별 건곤이번치(新春號)한권만사면 시골마다 앗단한 개벽사에서 에누어서 구경하는셈이된다 후에말한두가지련람회가지 진 여러가지 자미잇는 괴사를읽고 건곤이번치(新春號)한권만사면 시골마다 앗단 개벽사에서 만하지못하는형편이라한다 잡지 가 번호잇번이외에만 번롭해게보내면 책값은단五十二錢이 문도곳부터주고 돈보냄 에는 반듯이 別乾坤新春號를 곡하여런것인지 아즉자미못부티이

雜誌界最高人氣 新記事六十가지 新春號 別乾坤!! 絕版前에 수日發行 사시요

이보니단 말한 괴록도 실리어

模範 自動車運轉手 養成
唯一한本組合講習所로와서배우라 甲種免許엇기까지 責任敎授
全部完成自動車實地敎授 (相談)
▲大阪天下寺區大道四 公認 大阪自動車營業組合養成所

土金石金銀買入
京城明治町 德力出張所

募集人員 第二學年五十名 第一學年 …
公州永明學校生徒募集
試驗期日 三月二十六, 二十七, 二十八日 詳細本校問議

本人의二月二十七日京城驛에서「스리」에게紛失한印章과圓形印章二個 失其印章은今後無效 仁川外里 七 金知泰彥

京城府公平洞七十八番地
西洋料理 朝鮮料理 스키야기
太西館

반벙어리 訥言矯正案內書無料送呈 京城府堅志洞九八ノ二 訥言專門院

萬年筆
實用萬年筆 パイロット セーラー メーブル
(一四以上各種)
京城府鐘路二丁目 楠商店
電話光二○○三番 振替京城七九二二番
(目錄進呈)

筆生
年中無休收入多大하야本鄕開最適하며製品은永久的이며 買受할○한期間必要하신분은 二錢切手添付하야申込하시오
大阪市港區 西田中町二 榮光社

文化書館
賜付한兩書에서書籍은 書籍을求하신다고 서울서부터 해까지 이一帆뒤편이 엇지 여한가 京城府仁寺洞 一九○ 振替京城 一四四六番

朝鮮劇場
(가조나)ー 聞소人 電話光二八一番
◇월로마돌 三日(水曜) 卽日 主演 新說 大活劇 砂漠의暴風 8
◇그라고 특별 제공 魔女 7
悲戀의樂聖 9

優美館
電話光二九五番
大正名畫 天下의大名畫 伊太利 高級 世界的大名畫
鐵腕의男 11
사치한기집애 9

團成社
電話光一九五九番
娛樂人名物 特別最大巨作 豫告
톰 보 이 7
包圍中에서 8
女難襲來 9

돈ㅅ벌이하는 女子職業探訪記 (10)

女性의裡面과表面

새로살길을발견한듯뎜비는 「카페」의「웨트레쓰」설음(下)

밤을낫삼아가는곳은어대메뇨 필경은타락의굴엉에빠드릴뿐

홍등록주에몸만시들어간다

뷰가리 흥분하엿이 며칠동안 안슴니다. 다시에야오면거리에 다시 한해의찬바람이 인왕산을넘어들어 휘파람치는밤이엿다 긔자는 P 「카페」에서 엇볼수가잇슬것이다 그들도 역시사람다운 마음이 잇는 사람들이다 ……

「그러면 사나 허도임시녀이니 당신도 임시녀 자분으로서로희 망과모든동경(憧憬)이업습니다」 「그래 위로하고십지요 그러나 이아니로되사회의사정으로인하야 그와가티그네들의바라는바와는천대로현실하야 가는것이엇다」 ……

「그럼 그런생각만은 가젓다」 「이런생각도 이러케말슴하실다 이와비슷한 것으로는 우동인들어오는판에 빨을 더게속지 이닥처오면 비중에몰러 타락한 ……」 ……의생활내용을 이하화 가운데 ……(끗)

中等學校卒業期와 女子心身의危機 (二)

경력잇고친근한지도자가필요

남자

와녀자간에는각방이잇슬수업습니다 그래서일생 면오로차이가잇지에대하야 지우한 관계가잇는곳 ……

「그래당신은 서지장생각은엇소?」 「누가머러감사람이잇나요?」 「아니잇다고하면바이오」 「어되잇나요 잇다면그도역시 그런사람이지오 얼시네는 이아온」 「한아진실되어가잇다면야…」 ……

위긔

예에대해서 말하면이 사긔에는 감수성(感受性)이 가장 예민하아집니다 외계(外界)의 모든 자극(刺戟)에대해서 동요되기쉬웁고 또 ……

월경

월경 자에잇서서는 월경 위긔입니다 녀 ……시에는정신의변동이큽니다 ……

新世紀의 認識理論 (七)

東京 金日善

우리들의肉體上具體的生理的變化病理現象中의하나도生理學과病理學教室에서說明하는바生理法則, 病理法則 그와正確히同一한狀態는업슬것이다한가지에피인無窮花와松이도各各差異點을가지고잇스며어제보든 金日善도오늘의그와는 正確히同一하다할수업슬것이다 이와가티人間이어서하야 具體的實在그自身에는눈을감고 들이어그反對로 實在의影子가튼概念이라든가法則이라든가를 追求할가? ……

라듸오放送

三月五日(月曜)

▲午前一一、〇〇料理品目 日用品時勢▲〇、〇〇講演▲一、〇〇天氣豫報▲三、四五뉴스▲六、〇〇映畫物語解說岡田天城「흣소리니」東京同西山寸鐘作奏「奴島栩의繼塚唄布袋家小喜多」味作是六小三味吉田家お多福▲

一九二八、一、六

短編小說 蹂躪 【六】

崔獨鵑 作 / 李靑田 畫

영자는 그이튼날부터 백원리대우를받는 두식구가잇스니 하의집 식구가되엿다 아이들이무나는 영자자신이오 또하나는명시로 드나들며 공부를하는데는면에 외학건신학교를 마친다는 주인의 친구의아들이라는 스물영자의방이 편리할것, 아이들의공부하는방소는 위생에 덕당하 ……

新刊紹介 ▲新民(三月號)參拾錢東京市四谷區三光町八番地中央新聞 ……振替東京九七〇〇番

二千萬우리兄弟姉妹시여 동양목을사실때에반듯이 東洋木석자를자세히보시고 바드십시오 무심히바드시면책이 쌀고물질이나진다른비슷한물건을바드시게됩니다 특히쥬의합시오

靑年 卒業生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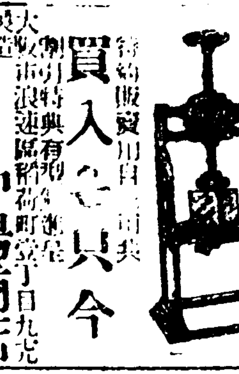
◎읽으라 新興朝鮮의마음을알려는이는 ◎勿驚 執筆者七十有六人 ◎보라 現社會에서奮鬪하려는이는 ◎各學校當局者의高見金語!!

定價 本號限 四十五錢 / 京城 靑年雜誌社

림질 매독 專門 치질 폐병 全治療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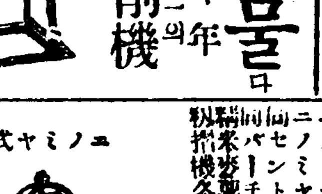
新發明 機 ……

今年도가물다 氷商의今年 鳥羽式氷削機 ……中陽商店



運動用具 運動服裝 卸問屋 藤野商會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一〇六

地方特約店募集 京城鐵工所 ……



力馬20•15•10•8•6•5•4 在庫品豊富

미국염료상품이왓슴니다 本洋行染料는純米國品으로品質이良好하고價수도低廉하며各色別로試用封을具備하얏사오니江湖諸氏는一次試用하야보십시옵 試驗封各色十種이具備되엿슴니다

미국물감의색갈을시험하시고자원하시거든아래용지에빗갈과주소씨명을기록하시고우표를동봉하야 본양행으로보내십시오

WILLOW Trade Mark Fast Dyes

米國品直輸入都賣商 柳韓洋行 京城府鍾路通二丁目

注文用紙 一、家庭에서試用코자하시면 ……二、商業家諸位로各色全部를 ……
色別 住所 商號又는名稱 氏名

京城女子商業學校生徒募集

慶南晋州 一新女子高等普通學校生徒募集

京城齒科醫學校生徒募集

三月一日부터 男子閣衣 婦人치마 女學生用 本세무 出賣 地質最優秀品豊富 釜山辨天町一丁目 堀口洋反物店 電話一二七番

味の素謝恩懸賞當選發表
昨冬募集하온아지노모도(味の素)謝恩懸賞은多幸히江湖의絶讚을바더 應募數多數로盛況裡에締切하고所定한바와가티東亞日報社, 朝鮮日報社, 京城食道園主, 京城辻本商店, 釜山あづまや商店에서嚴密한審査를行한結果左記와如히等級을選定하고各各賞品을贈呈하엿슴니다. 玆에發表와함께謝意를表하나이다.

壹等 金側腕卷時計壹個 京城府竹添町八十六番地 崔承烈氏
貳等 銀側腕卷時計壹個 平安北道鐵山郡 ……金壽昌氏
參等 味の素特小瓶壹瓶 三百五十人
責任所、氏名은略함

味の素本舖 鈴木商店大阪支店 大阪市北區 ……

ClibPDF - www.fastio.com

七年동안繼續된 禁酒,禁烟組合

二日間定期總會,新入會員多數

總資金一萬六千餘圓

己未運動以來 風城社會도 雨後竹筍가티 닐어나는 社會의 風潮를 딸하 當然히 起한 私立禁酒禁烟貯蓄組合은 大正十一年六月創立으로 地方發展、智識啓發、衛生經濟 禁酒禁烟과 預金取扱을 目標로 하야 楊弼周 朴鳳祚 李元洪 外 諸氏의 만흔 活動으로 會員九十餘名이 毎月一圓式 貯蓄에 熱心하고 規則을 嚴守하야 七個年이라는 長久한 歲月을 一日과 가티 興味잇게 實施되어 온 것은 屢屢히 紙上에 報道된 바어니와 大正十年四月부터 總資本金 四千餘圓으로 該組合內에 商務機關을 設置하고 商務에 着着進行中이며 商務成績이 極히 良好함을 딸하 一帶에 그의 名聲은 더욱 新新케되고 全鮮을 通하야 禁酒禁煙組合으로는 第二位를 占領하얏다 하야도 過言이 아닐만콤 日進月步의 勢로 發展되어 가는 中 去二月廿八日午後一時부터 該組合 第六回定期總會를 當地楊弼周家에서 開催하게되엇는데 一般會員이 佩花徽章으로 滿場和氣裡에서 九十餘會員이 出席하야 議事를 進行하얏는데 組合長朴炳浩氏의 簡單한 開會로 會員點名을 마치자 各種의 經過報告와 商務部事業報告가 잇섯는데 組合總資本金이 一萬六千二百六十七圓十五錢이오 昨年度純益利金이 八千二百八十八圓이엇는데 組合을 賞成하야 當日로 禁酒禁煙을 斷行하고 新加入會員이 二十一名에 達하야 一時는 申請書接受에 紛忙狀態를 呈하얏스며 約二時間休息後 同七時半부터 本組合主催로 當地 敎會堂內에서 禁酒禁煙에 對한 講演會를 開催하얏는데 男女會員百餘名과 定刻前부터 雲集한 遠近男女客은 立錐의 餘地가 업시 大盛況을 이루엇스며 定刻이 되자 主催側인 本組合理事金國祥氏의 開會辭가 잇슨 後 組合員楊鍛鉉氏의 創作 飲酒吸煙에 害毒을 바더 複雜多端한 이 時代에 醉生夢死로 歲月을 보내게 되엇스며 寒心한 狀態에 잇는 우리는 每日每日 生活難에 싸저 極度로 困難狀態에 잇게 된 것은 大部分 酒煙中毒이 原因이라는 意味로 말하얏스며 뒤를 니어 海土稙在君의 「現下에 우리와 飲酒運動」이라는 問題로 長時間을 向하야 經濟的、敎育上 立場에 酒煙의 害毒을 맛는 實例를 들어 滔滔한 雄辯으로써 一般聽衆의 心魂을 서늘케 하야 現場에서 斷然히 禁酒禁煙을 斷行키로 決心하고 多數한 聽衆中에 感激한 人士가 十餘人에 達햇스며 또한 本組合 嚴然嚴然兩君의 淸雅한 美音으로 禁酒禁煙歌를 並唱하야 拍手喝采中에 二百餘聽衆으로 하야금 만흔 늣김을 주엇는데 今番의 講演會는 近年稀有의 大盛況으로 同十時半에 無事히 閉會햇다더라 그리고 그 翌日午前十時에 다시 新舊組合長의 交遞式이 잇슨 後 議事를 進行하얏는데 本組合의 主旨 精神과 使命을 널리 宣傳하기 爲하야 特別히 有給總務를 두어 만흔 活動을 하기로 可決하고 또한 商務部에 有給書記를 採用하기로 하며 또 要地에는 支部를 두어 遠方에 잇는 會員의 每月會金을 取扱케 하고 一面으로는 禁酒禁煙貯蓄思想을 喚起케 할 것을 一致로 可決하고 理事全國梓 書記李光寬氏에게 組合品을 讓渡하얏는데 商務部建物이 狹小함을 一般會員이 甚히 遺憾으로 思料하야 一千五百圓 限度內에서 新히 建築 又는 買得할 것을 役員會에 一任키로 한 後 午後二時頃에 盛況으로 無事히 散會하얏는데 役員을 投票로 選定하니 다음과 갓더라(昌城)

組合長楊鍛鉉、副組合長朴炳浩、總務楊贊周、理事全國梓、書記李善求、檢查許禎芝、康濟璜、金明涉、評議員姜英尚、許應珍、朴鳳華、金義涉、朴成龍、金海祁、商務部總務王潤山、文鳳祚

繼續委員會

私立禁酒禁烟貯蓄組合定期第六回總會가 去二十八、九兩日間으로 當地楊弼周氏家에서 開催하얏다 함은 別項報道와 如하거니와 定期大會를 마치자 約二時間休息後 五時부터 同所에서 委員會를 열고 左記諸般事項을 順調로 決議한 後 同七時에 無事閉會하얏더라(昌城)

◇決議事項

一、商務部建物買得에 關한 件
一、委員旅費支拂에 關한 件
一、會員門札及看板購入에 關한 件
一、有給書記月給支出에 關한 件
一、支部設置에 關한 件
一、商務部傭人採用에 關한 件

恩露校維持會 及公職者大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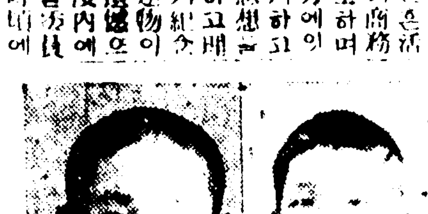
◇經費問題討議코저

始興郡北面本洞里(爲栗洞)에 잇는 私立恩露學校는 本報에 累報한 바와 가티 創立以來 二十餘年前에 設立된 以來 別別 悲觀을 다 當하야서 維持困難의 悲運에 싸저 閉校할 至境에 니르기를 一二次가 아니든 中 現在에도 三百餘兒童을 敎養하는 中이나 亦是 相當한 財源이 업슴으로 維持하기에 該校當局者들이 만흔 苦心을 하는 中이라는데 昨年前에 北面長李觀秀氏가 該校를 訪問하고 今年에는 道로부터 相當한 補助가 잇슬터이니 于先 必要한 買入할 備品目錄을 郡에 提出하라는 郡守의 命令이 잇다고 傳達하얏슴으로 該校에서는 勿論、一般學父兄들은 無限한 希望과 曙光을 企待하얏던 바 今年度始興郡學校費豫算에 一分의 計上이 업슴을 同評議員들의 猛烈한 質問에 當局의 答辯이 가장 不徹底함으로 結局 今年에도 주겟다는 所謂 補助金은 空言에 不過하게 되엇슴으로 該校當局者들은 實로 落望할 뿐 아니라 北面公職者及同校維持會에서는 當局의 態度가 넘우나 冷酷하다 하야 매우 憤慨할 뿐 아니라 將次 압흐로 維持할 方策을 講究하고자 오는 六日午後七時부터 北面事務所內에서 恩露校維持會 公職者大會를 開催한다는데 同日決議에 依하야서 道當局에 此를 陳情하리라더라(始興)

螢雪榮冠

◇기쁘게校門나서는 今春卒業生

開城松都高普校 開城松都高普校第九回卒業式을 去二日午前十一時부터 同校內에서 擧行하얏는데 卒業生總數七十六名中 優等生은 俞鎭仁、張起呂兩君이오 그들의 上級學校入學志願及就職別은 如左하더라(開城)



▲京城帝大 ▲京城高商二 ▲京城延專一 ▲世醫專門六 ▲京城法專一 ▲水原高農三 ▲其他學校一九 ▲就職及其他四一

▲寫眞은 優等生兩人 右는 金君 左는 張君

學年延長運動

錦山公立普校

全南高興郡錦山面(居金島)公立普通學校는 大正十四年九月에 設立되어 二百四十餘名生徒를 敎養하야 四學年制로 今年三月에 第一回卒業生이 잇게 됨으로 去年七月에 그곳 有志들이 學年延長期成會를 組織하고 基本金收合에 努力하얏스나 財界의 恐縮及各公課의 負擔이 過重할 뿐 아니라 設立當時 基本金及校舍建築費로 一萬一千圓을 支出한 不過幾個月間에 또다시 巨大한 金額을 募集할 수 업슴으로 一時 中止하얏다가 明年度에 基本金을 造成하자고 同期成會幹部側에서 決議한 배 잇섯는데 同校四學年生徒等의 物論이 紛紛하야 우리의 사는 곳은 敎育機關이라고는 다만 普通學校一個所뿐인데 萬若 今年에 六學年制로 延長이 못된다면 우리들은 無産者의 子弟로서 絶島에서 外地에 遊學할 수도 업는 處地인즉 學業을 中途에서 廢함은 우리의 前程에 關係가 잇다고 三十三名의 生徒가 三隊로 分하야 日本으로 留學을 가겟다고 作定한 배 잇서 이 消息을 들은 學父兄及期成會幹部等은 生徒들의 向學熱에 感心하는 同時 다시 奮發하야 期於히 今年에 延長시켜야 되겟다고 晝夜로 活動한 結果 約一個月間에 所定의 七千圓을 積立하얏다는데 그中 未收入條 一千四百圓은 錦山面에 關係가 깁흔 海苔商人 小山七條兩 日本人이 先當한 것이며 同面一般은 延長될 줄로만 自信하는 同時에 當局에 交涉中이라더라(高興)

載寧學院爲해

後援會를組織

黃海道載寧邑內에 잇는 載寧學院은 지금으로부터 三年前 即 大正十四年度에 當地有志靑年들이 돈업시 배우지 못하고 街路에서 彷徨하는 無産兒童을 救濟하기 爲하야 創立되엇든 바 以來 三個星霜을 維持하야 오는 동안에 波瀾曲折이 重疊하얏스나 同院敎員諸氏의 뜨거운 熱誠과 市內有志人士의 多少義捐을 바더서 載寧無産敎育에 적지 안흔 貢獻을 하야 오든 바 同學院兒童은 日增月加하야 現在 學生이 百七十名以上에 達함으로 多數의 物質補助가 업스면 繼續할 道理가 업슬 뿐만 아니라 一般人士로 하야금 痛恨의 感을 演出케 되엇든 바 지난 二日下午二時 當地有志人士數十名이 載寧鄕約會舘內에 會合하야 後援會를 組織하고 同時에 金東錫氏司會下에 後援會創立總會를 열고 同氏의 趣旨說明이 잇슨 後 會則通過와 任員選擧를 마치고 同會進行方法에 對하야 여러가지로 討議한 後 同四時頃 散會하얏다는데 地方有志人士는 同院의 將來를 爲하야 만흔 同情이 잇기를 바란다더라(載寧)

梁山脚戲盛況

一等은林億萬

梁山靑年同盟梁山支部主催와 本支局後援으로 去月二十五日부터 四日間 繼續하야 脚戲大會를 開催한다 함은 旣報한 바어니와 今番의 脚戲는 在來의 遊戲氣分的意味를 超하야 眞實한 勇力鼓吹와 體健發達을 爲함임으로 모든 것을 組織的 規律的으로 하고 宣傳과 賞品도 特厚케 하야 豫定과 가티 始作되엇는데 初日에는 五等、二日에는 四等、三日에는 三等、四日에는 一、二等決勝을 하고 去廿九日下午九時에 終了하얏다는데 最優勝者는 優勝旗授與와 萬歲三唱으로 林億萬氏가 되엇고 特히 四日에는 本支局에서 番外特賞五圓을 懸하고 技術的鍊達을 圖케 할 目的으로 「관쇄름」大戰이 잇서 金海池石峰氏가 榮光의 最後勝者가 되엇스며 觀衆은 無慮數萬의 人海를 成하야 梁山初有의 大盛況이엇고 그 모든 規模에 잇서 嶺南脚戲大會中 一步를 進한 바 잇섯슬 뿐만 아니라 選手는 慶北大邱、高靈으로 爲始하야 蔚山、密陽、金海、東萊、釜山等地 四十餘의 猛虎가 會集하야 萬丈의 氣를 吐하얏다더라(梁山)

療養地오歡樂地인 海雲臺溫泉擴張

東海岸線開通으로將來有望

◇新溫泉을掘鑿中

東萊의 海雲臺라면 압흐로 바다 뒤으로 萇山의 明媚한 山海를 兼有하야 녯날부터 詩人墨客의 往來가 頻繁하야 世上에 들어난 지가 오래거니와 現今의 溫泉經營으로는 그의 面目을 維持하기에도 부끄러운 배 만타하야 世人의 寒心히 생각하던 바 今般 京城富豪荒井初太郞氏外 二富豪의 合資會社가 組織되어 溫泉의 海雲臺 療養地로의 海雲臺 歡樂地로의 海雲臺의 面目을 一新할 아래 如케 하리라는데 이미 同會社에서는 二十萬圓으로 附近地帶의 土地를 買收中이며 此土地買收가 終了되면 旅館療養所等을 新築할 것이라 하며 方今 同會社에서 掘鑿中에 잇는 新溫泉의 工事도 水溫水質에 잇서 成績이 良好하다 한즉 此等工事가 竣工하면 療養地로의 大海雲臺가 建設되리라 하며 方今 工事中에 잇는 東海岸線의 開通과 함께 되엇다 南鮮의 一大歡樂地가 되리라는데 더구나 同會社海雲臺管理人金化壽氏와 同會社經營者인 土屋與作氏는 靑年活動家로 海雲臺에 對한 硏究가 가장 만흠으로 大海雲臺建設에는 最適한 人物이라 하겟스며 兩氏의 言에 依하면 今秋에는 會社의 公言함에 그리 부끄럽잔흔 施設을 하겟다고 하더라(東萊)

京城洪川間 郵便物直通

京城洪川間郵便物은 直通이 되지 못하고 春川을 經由하야 二日만에야 洪川에 到着케 되어 通信上 매우 不便을 늣기엇슴은 一般이 함께 늣기든 바이며 이에 對하야 오래 前부터 直通되기를 渴望하야 오든 바 三月一日부터 每日 直通實施함을 보게 되어 以後로부터는 通信이 極히 便利케 되엇다더라(洪川)

地方論壇

三一女校動搖

男校理事會에 告함

水原 一記者

水原三一女學校에서는 가장 多事하고 複雜한 學年末인 이때에 敎務主任先生을 突然이 變動시킨 怪常한 事實이 잇다

普通學期도 아니오 學年末임에 그 學校의 形情에 精通한 先生이라도 가장 어렵고 複雜할 터이며 또한 上級學校入學을 準備하는 卒業生들에게는 더한층 敎務主任變動이라 함은 가장 큰 不幸일 것이며 적지 안흔 支障을 生케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와 가티 重大한 時期에 잇서서 數百兒童에게 미칠 莫大한 影響이 잇슬 것을 알면서도 이 일을 斷行케 한 理由라는 것은 어떠한가

年前에 니러난 三一男學校의 主任先生排斥問題로 敎員對該校理事會間에 거듭 넘어갓든 問題는 그時 雙方의 讓步로 一時 表面만은 解決을 告하얏섯다 그러나 內部에 잇서서는 恒常 嫉視로 敵對視하야 오든 바 一般世人의 耳目에도 들어나리만큼 二校內에는 完然한 作黨이 되어 잇섯다 그러는 가온데 가장 問題의 主動이 되어 잇든 某敎員이 朝變夕改의 背信行爲를 가지게 되자 이 자의 心理를 利用하야 暗暗裏에 올치 못한 計劃이 各方面으로 敎員身分으로는 容恕치 못할 不美한 行動이 世上에 또 傳하게 되자 그 者는 그만 자최를 감추게 되엇다 그때에 理事會에서는 所謂 그 가증스러운 굴레를 벗게 되엇스니 今日에 三一女校에 니러난 主任先生變動의 事實도 그로 基因된 것이며 그 內幕은 左記와 가튼 몃가지의 理由답지 못한 理由이라 即 同盟辭職敎員에게 煽動한 嫌疑가 잇다는 것과 辭職의 理由인 聲明書를 박이는데 學校의 謄寫版을 使用하야 주엇다는 것과 該校女先生某某도 煽動하얏다는 等의 怪常한 自白書이엇다 이를 受理한 理事會에서는 이것을 다시 女學校校長에게 넘기어 相當한 處置가 잇기를 바란다는 付托이 잇서 以上의 諸先生에게 女校校長은 即時 今番 가튼 상서럽지 못한 處事를 나리엇다 한다 이런 突發的 主任更迭이 생기자 同校의 學父兄들은 一大不平을 품게 되며 不安을 늣기게 될 뿐 社會의 輿論도 어지간히 沸騰하야 감을 달한 筆者의 調査한 바에 依하면 女先生某某와 前記主任의 煽動云云은 오즉 虛無한 事實이며 한가지 問題를 삼는다는 것은 謄寫版을 빌려 주엇다는 것인데 元來 三一男校와 女校는 經營者는 다르다 할지라도 한 基督敎에 附屬機關일 뿐 아니라 비로부터 두 校의 敎員은 한 學校의 職員과 가티 지나려 오는 關係上 그 校의 物品인 謄寫版을 좀 빌려달라는데 對하야 그 用途가 別般惡意의 宣傳이나 或은 不穩한 文句의 聲明書가 아니고 오즉 自己네가 同盟辭職케 된 態度를 一般社會와 學父兄에게 明白히 하기 爲하야 그것을 박이는데 쓰겟다는데 빌려주엇슴이 무슨 그리 큰 問題가 될 것도 아닌데 學校에는 아모런 影響이 잇슬 것도 아님에 不拘하고 學年末인 이때에 敎務主任을 變動한 該校長의 處置를 우리는 穩當하다고 볼 수 업는 同時에 그들이 至重한 兒童敎育에 얼마나 誠意를 가지고 잇는 것도 엿볼 수가 잇다

…으로 理事會에 一言을 告하려 하노니 朝變夕改하는 背信漢의 사람스럽지 못한 企圖를 信用하야 平和스러운 他校에까지 動搖를 닐으키는 그런 心事는 또한 抑何心情이며 그中에도 同盟敎員과 反對派인 어떤 容…

永興靑年同盟

執行委員會

大會日字決定

既報한 바어니와 永興靑年同盟에서는 中央執行委員會를 去二月十五日에 開催코저 하얏든 바 新幹會大會禁止를 口實로 當局이 中止를 當하얏든 바 지난 二日에 니르러 零時半부터 朝鮮日報支局內에서 第六回執行委員會를 開하고 議長金哲氏司會下에 左記事項을 討議한 後 同一時半頃에 閉會하얏다더라(永興)

決議事項

一、大會時日은 三月十五日午前十一時로 場所는 本會館으로 定함
一、大會準備에 關한 件 委員朴應洛氏外三人에게 準備一切를 一任
一、支會承認及入會願修理의 件 洪仁古寧兩支會를 承認하기로 하고 權永玨外一百七十二名의 入會願을 修理하다
一、會館建築費에 關한 件 各支會에 督促케 하되 財政部에 一任
一、昨年度自擔額及入會金不納盟員處置의 件 昨年分自擔額은 免除키로 하고 大會以內로 大會金全部를 不納하는 支會는 除名하기로 함
一、代議員에 關한 件 支會가 設置되지 못한 區域內의 盟員은 大會當日에 來參하야 十人에 一名의 代議員을 選出케 함

金海郡農會

慶南金海郡農會에서는 去二月二十九日三月一日兩日間 金海面役所階上에서 第二回總會를 會長金海郡守閔氏司會로 開하고 會員三十餘名의 出席으로 諸般事項을 決議하얏는데 今年度歲入歲出豫算統計는 다음과 갓다더라(金海)

歲入部	歲入經常部	一八、〇〇四圓
	歲入臨時部	六、八五五
	計	二四、八五九
歲出部	歲出經常部	二三、八一五
	歲出臨時部	一、〇四四
	計	二四、八五九

西沙嶺農友定總

奉天西沙嶺保治拜堂內에서 去廿五日午後三時에 沙嶺農友靑年會第三回定期總會를 開하고 金保榮氏司會下에 諸般事項에 對하야 討議한 바 賭博은 積極的으로 嚴禁하기를 可決하고 左記와 如히 委員을 改選하고 同七時에 閉會하얏다더라(奉天)

會長金保榮 副會長李興俊 幹事記林載洙外八人

昌原支部設立

昌原靑年同盟昌原支部를 設立코저 萬般의 準備를 한다 함은 이미 本報에 報道한 바어니와 準備가 着着進行됨을 따라 來九日午後二時에 昌原靑年會館에서 設立大會를 開催한다는데 各友誼團體의 만흔 聲援과 指導가 잇기를 바라는 同時에 十六歲以上二十七歲까지의 靑年男女는 多數參席하기를 바란다더라(進永)

馬山犯罪數

馬山警察署管內 昭和二年度의 犯罪發生及檢擧件數統計表는 如左하다더라(馬山)

	犯罪件數	檢擧件數
強盜	三	三
窃盜	三三七	二四二
恐喝	三	三
詐欺	一二五	一〇四
橫領	六五	六六
傷害	一三五	一三四
其他	三八九	三八四
計	一、〇五七	九七六

朝鮮村道路는 削除、縮少로議決

十六萬圓埋築은原案대로

多難의仁川府議終幕

例의 土木費問題를 充分硏究하기 爲하야 그동안 多日休會하얏든 仁川府協議會는 지난 三日午後二時半부터 仁川府會議室에서 再開하야 花町埋築工事의 第二讀會를 續開하야 河野氏의 反對意見이 잇섯스나 그 河野氏意見에 對하야 贊成하는 便은 겨우 五人이오 府의 原案을 贊成하는 便이 大多數를 占하야 原案대로 議決한 後 土木費를 一括하야 豫算을 計上하고 篤志家의 寄附金을 募集하야 그 寄附金이 府原案의 路面으로 改修할 만한 額에 達하는 時에는 原案대로 하야도 無妨하다는 뜻으로 條件付로 原案復活의 提案을 金允植氏로부터 取消하얏스나 議長도 第二讀會決議를 取消한다는 宣言을 取消하고 곳 三讀會로 入하야 讀會를 省略하고 二讀會決議대로 可決確定한 後 午後八時三十分에 多難의 仁川府協議會의 終幕을 나리엇다더라(仁川)

…會에서 幅員을 縮小하기로 議決하얏스나 朝鮮人議員中에는 日本語를 잘 通하지 못하는 人도 잇는 關係上 議決이 錯誤된 바도 업지 아니하니 當初府의 原案에 復活케 하야 달라는 提議가 有하야 니어서 金相動氏의 希望意見이 有하얏고 그 뿐 아니라 金谷里松林里住民으로부터 協議會에 對하야 原案復活의 歎願이 잇섯슴으로 議長橫田府尹은 朝鮮人議員의 要望이 理由 잇는 것으로 認하야 即席에서 第二讀會의 決議를 取消하고 金谷里松林里道路와 富川郡廳通道路의 第二讀會의 再開를 宣하니 後藤連平氏로부터 反駁이 잇서서 場內는 一時 騷亂한 狀態를 呈하다가 力武氏로부터 協議會를 開하야 種種意見을 交換한 後에 會議를 再開하얏다 力武氏로부터 朝鮮人側議員의 提議를 取消하라는 希望에 對하야 力說하얏스나 力武氏提議에 贊成하는 便이 多하야 第二讀會의 決議를 尊重하야 金谷里松林里道路는 原則으로서 四間以內 富川郡廳通道路는 原則으로 三間以內로 討議하리라더라

寧邊農民社

去一日에組織

平北寧邊郡各面各洞에 農民會와 靑年會가 日日創立됨은 追日報道햇거니와 各洞에 散在한 團體를 聯合하여야 되겟다는 覺悟를 가진 金果六、劉達秀、張學秉、李應淵、朴泰演、金禹璉、明基祚諸氏가 活動한 結果 지난 一日下午七時에 天道敎宗理院內에서 李龍河氏司會로 寧邊農民社創立大會를 開하고 臨時執行으로 左記決議事項이 잇섯다더라(寧邊)

一、人身賣買廢止의 件 一、早婚廢止의 件 一、迷信打破의 件 一、少年運動의 件 一、農民夜學의 件 一、身體修養의 件

群山勞聯委員會

群山勞働聯盟執行委員會에서는 오는 六日午後七時부터 群山勞働聯盟會舘에서 執行委員會를 開催하고 從來 여러가지 關係上 잘 進行되지 못한 經濟的問題에 잇서서는 從今부터는 積極的復興을 講究할 것과 其他諸般事項을 討議하리라더라(群山)

今始初聞

郡廳移轉에對한 松井郡守談

馬山府內에 位置한 昌原郡廳을 鎭海面으로 移轉하기 爲하야 鎭海面民들이 數年前부터 暗暗裡에 運動하야 오든 事實이 發露되자 昌原面에서 面民大會까지 開催하고 反對하는 同時에 昌原面으로 移轉할 運動에 着手하기로 決議되어 實行委員들에게 實行方針을 一任하얏다 함은 當時에 報道한 바어니와 其後로도 兩面民들은 쉬지 안코 各其郡廳移轉運動을 하야 오든 바 晦近에 至하야 今春內로 鎭海面에 移轉하기로 內定되엇다는 風說이 잇는데 松井昌原郡守는 今始初聞이라 하면서 郡廳移轉은 何時何面으로 實現될는지 豫測키 難하다고 云云(馬山)

懸賞雄辯開催

奉天靑年會主催

奉天朝鮮人靑年會에서는 來十五日에 懸賞雄辯大會를 연다는데 奉天在住白衣同胞의 思想이 넘어도 沈滯함을 恒常遺憾으로 생각하야 만흔 感想을 주고저 한다는데 만히 參席하기를 바란다더라(奉天)

五山高普卒業式

定州五山高等普通學校第一回卒業式은 今五日下午一時부터 同校에서 擧行한다더라(定州)

雜信

裡里 ◇益山郡農村에는 春窮이 들매 또 强盜騷亂이 풍숙풍숙 닐기 始作한다 걸찬랑반 넘네 思想犯取締에만 헛수고하지 말고 좀 方向을 轉換하야 强窃盜騷亂을 豫防하얏스면

◆開城衡平社臨總 開城衡平社에서는 三月一日同會舘에서 臨時總會를 開催하고 左記事項을 決議하얏다더라(開城)

一、在監同志에 關한 件 一、唐津紛爭事件에 關한 件 一、屯浦學校內差別問題에 關한 件 一、本部維持金에 關한 件 一、迷信打破에 關한 件 一、人身賣買에 關한 件 一、早婚廢止에 關한 件 一、新幹會에 關한 件

高敞 ◇茂長新任公醫李常敏氏는 去月二十五日二十六日兩日間에 三省醫院內에서 官民有志五十餘名을 招待하야 新任披露宴을 擧行

◇茂長鄕校에서는 去月二十七日에 釋奠祭가 잇슨 後 儒林들은 古道를 復興한다고 白髮老人과 長髮少年들이 步調不齊한 갈지(之)字걸음으로 「相揖禮」를 行하고 四書三經을 高聲朗讀하얏는데 그들은 此世稀有의 盛事라고 자랑

◇茂長郵便所는 隔日配達한다는 郵便物이 五六日七八日만에도 孔音面에 配達한다는데 그中에도 孔音面이 特甚하야 急한 편지는 勿論이고 新聞도 傳送에 漏落이 不少하야 同面人士一般은 困難과 被害가 만하고 非難

◇海里公立普通學校의 學年延長을 運動하기 爲하야 基本金三千圓을 모으는데 現在徵收額이 一千四百餘圓에 達하고 郡廳에 貯置한 三千五百圓과 合하면 約二千圓에 達한다는데 지난 去月廿九日午後二時에 學父兄들이 同校敎室內에서 期成會를 開催하고 積極的으로 完納케 하기로 決議하고 三日에 期成會長閔泳直氏外四氏가 上下面에 出張하기로 決定

地方人事消息

◇金相鎬氏(高敞高普專務理事)는 同校務로 歸京中 去二日歸任
◇洪鍾轍氏(高敞高普理事) 同上
◇吳東均氏(本報高敞支局長) 全北記者團例會出席次 去二日裡里에

사랑과죄 [200]

廉想涉 作
靑田 畫

피신 二

「난 살아야 소용업는 사람애요 남에게 사랑을 바들 위인도 못되고……그러케 친절히 해주시면 저게는 위로도 안되고 괴롭기만 합니다 차라리 채쪽질을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겟습니다」

순영이는 인제는 울지도 안햇다 그는 지금 어제人밤에 생각한 일――오늘 실행하라는 일을 머리로 생각하야 보앗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실행할 수 잇는 일일가를 생각하야 보고는 쏙족가티 실신한 사람처럼 허공을 바라보고 잇섯다

「사랑이 살아서 소용이 잇느냐 업느냐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조치 안흔 일이라고는 할 것이 아니지만 공연한 걱손이지요 그러한 걱손이 우리가 인생에 대하야 취할 필요한 태도가 아니라 어떠케 하면 바르게 행복스럽게 살겟느냐는 것만을 생각하십시다 어떠케 하면 행복스럽게 사시게 할가?――그것이 지금 나의 생각하는 전부입니다 그러고 당신을 행복스럽게 해들이는 일――그 일이 내게는 우업는 행복입니다 만일 순영씨가 나를 위하야 행복을 비시거든 나의 조그만 호의를 잠자코 바다주실게 아닙니까……이런 말은 또 할 필요가 업지오 자――들어가십시다」

하며 해춘이는 또 순영이를 끌랴 하얏다 순영이는 남자에게 이런 한 말을 듯기가 괴로웟다 반갑고 고마운 생각은 비할 데 업스나 감격하다 못해 마음이 아팟다 그러나 자긔의 심중을 말로 표시할 수는 업섯다

「나 하나만 눈을 감으면 고만이 구구한 목숨을 써닭업시 부지하랴니까 욕을 보고 남의 신세를 쳐치고 이러케 질질 끌려가는 것이다」고 생각할 제 누구나 이러한 때에 간순히 손쉽게 생각하드시 약병원 약국에 쏙 들어노한 분품이 머리에 떠나지를 안햇다 해주人집이나 올아비에게 대한 분풀이로라도 료뎡을 내어 보이리라고 니를 갈앗든 것이다

오늘 해춘이를 잠간 맛나보니 뒤에 새문밧집에 가서 모친과 올아비를 맛나보고 나면 이 세상에는 맛날 사람도 다 맛낫고 할 일도 다――한 두십히 가진 공상을 하얏든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해춘이의 이러한 말을 듯고는 마음이 또다시 어수선하야진 것이다

「아――버서 오신소……

이야기가 잠간 허리고 해춘이는 어색한 듯이 어정버정하고 잇스려니까 아츰부에서 문주인이 나려다보며 소리를 친다

「순영양은 오늘 하로만히 쉬어야 할걸요 하여간 어서 들어오수그려」

신초로인은 압에로 나려오며 또 유쾌히 떠들어 댓든다 인생의 전도정(全途程)을 기뻐어 왓대서지 걸어온 이 사람은 한세상 큰 허물 업시 무사히 지내온 것만이 다행하다는 듯이 아모 욕망도 고흡도 업는 양이 젊은 사람에게는 부럽기도 하나 자긔네와는 먼 세상 사람 갓기도 하얏다

해춘이는 인도하는 대로 주인의 서재로 들어갓다 순영이도 자긔에게 내어준 방으로 혼자 들어갓다

「어떠케 오늘부터 그림을 그려주시겟소? 무엇보다도 고본을 가라안처야 할게니까……?」

주인은 웃으면서 또 그림은 래…

「글세요…」하고 해춘이가 주저하는 눈치를 보드니

「어쨋든 그와 짓일로 해서 자긔의 진정한 생활을 희생하거나 과분을 산란케 하는 것은 아될 일이니까 결단하고 두어 안이 그리슈 그리고 류씨편에 대해서는 내가 가서 단단히 답관을 하고 올가 하는데 어떠켓소? 그 사람도 행세하는 젊잔흔 신사로서 그게 무슨 꼴이란 말슴요!……」하며 신초로인은 자긔가 가온데 나서겟다고 일종의 의분을 늣긴 듯이 자칭을 하얏다

社告

一、名稱 康津支局
一、位置 全南兵營
一、區域 康津郡一圓
一、職氏名 支局長 房泰燮 記者 南貫元 會計 房京云

右와 如히 變更함

東亞日報社

右就任함 東亞日報 進永支局 記者 沈相甲

右就任함 東亞日報 淸津支局 記者 禹鳳珠

青少年必讀の 六册揃只の一圓(送料共)

左の書籍六册特價二圓四十錢の處六册同時に註文者に只の壹圓に大割引す(代金引換は廿錢)

◎誰でも一讀スグ出來る不思議な術…… 誰にも出來る 催眠術

◎無藝大食の豐カラ業をアット言かしめる…… 手品 奇術 種あか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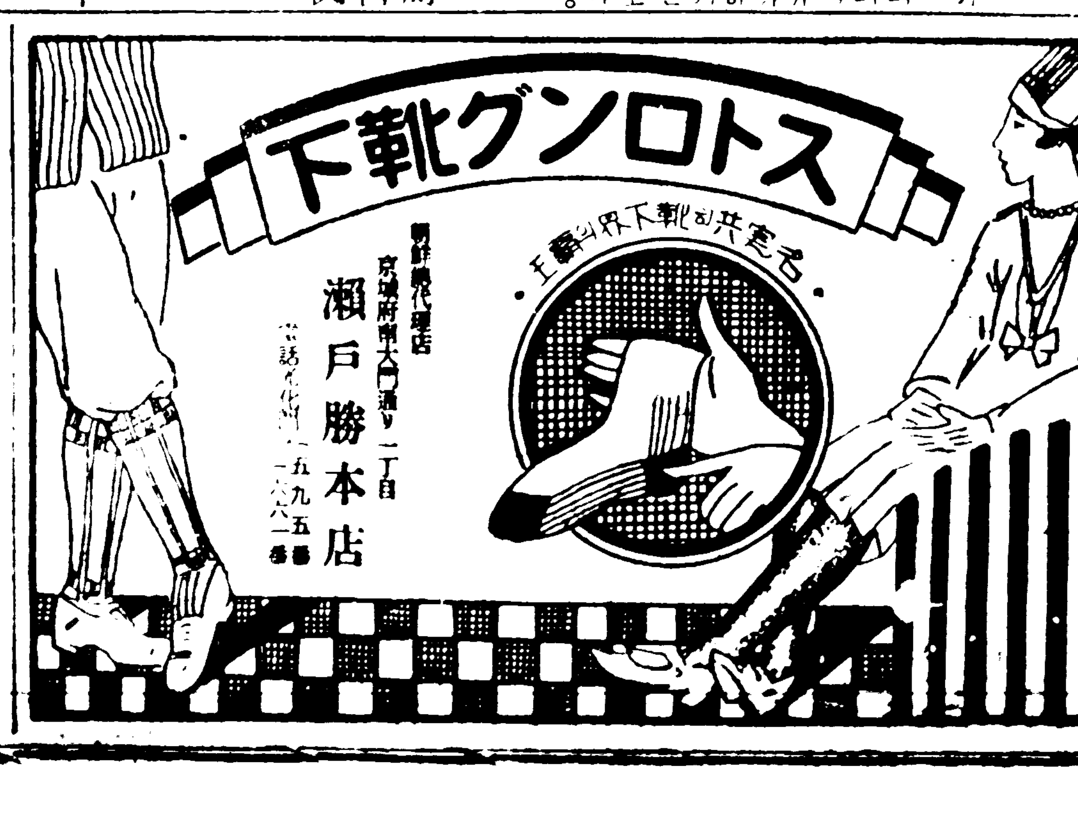
◎ヤ、ヤ、之は不思議!出現自在!!思ひのまゝ…… 少年 魔術と忍術

◎活かすも殺すも思ひのまゝの…… 柔道 極意

◎成功を望む獨學青少年は必ず讀め…… 小學卒業 立身案內

◎學校の撰擇は一生の成功不成功の分岐點…… 東京 學校案內

▲六册一時に註文の事 ▲ハガキで申込次第代金引換で急送す ◆東京市小石川 ◆振替東京六六八〇〇 進文館本店



果樹苗木 日光園